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우회공략

직영점 제동 … 가맹점 형태로 계약 맺고 시장진출 노려

홈플러스, 북구 동림동 일대 2곳과 계약 추진

영세상인들의 반발로 골목상권 장악에 제동이 걸린 대형 유통업체들이 편의점 형태의 가맹점을 늘리는 수법으로 동네 슈퍼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들은 직영점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 중기청의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돼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영세수퍼들을 가맹점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잠식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 등 지역 중소상인들에 따르면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최근 광주지역에 프랜차이즈(가맹)식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D마트 맞은 편 빈 점포와 N장터 2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계약을 마쳤으며 현재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서구 풍암점과 치평점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아닌 가맹점으로 전환을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홈플러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에는 남구 노대동에 롯데슈퍼 가맹점이 영업중에 있는데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이 문을 열 경우 SSM 가맹점은 모두 5곳으로 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월 말에는 SSM 가맹점이 홈플러스 6개, GS 수퍼 3개, 롯데슈퍼 1개로 모두 10곳에 그쳤지만 8 월 들어서는 홈플러스 15개, GS수퍼 8개, 롯데슈퍼 2개로 모두 15개가 늘어 두 달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도매업과 가맹사업 진출이 잇따르자 지역 상권 몰락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포를 늘리기 위해 좋은 조건을 내걸었던 대기업들이 가맹점 사업과 도매업이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 가격과 공급 등을 맘대로 조정하면서 지역 상권을 장악해 지역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도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에 '법인몰'을 운영해 소매점 사업자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있는데다 향후 동네슈퍼에 상품만 공급해주는 '임의가맹'방식의 가맹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은 물론 골목상권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지역 물류를 장악하는 순간 가맹점주들은 대기업의 종업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지역 상권도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업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기업들이 도매업과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중소기업중앙회와 광주은행은 19일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중앙회장과 송기진(〃 여섯번째) 행장, 광주·전남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光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협약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적립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광주은행(행장 송기진)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를 광주은행 147개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부도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도 광주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쉽고 편리하게 가입,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광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7월 지역 어음부도율 환란이후 최저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은 각각 0.38%, 0.1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7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이 0.0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서울은 0.03%로 전달과 같았고 지방은 0.04%로 0.02%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한은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어음결제분을 포함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저치이다.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작년 11월 0.14%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 0.08%, 2월 0.06%, 3월 0.07%, 4월 0.06%, 5월 0.05%, 6월 0.06%로 서울의 2~3배에 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상생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지난 2007년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이 제시됐지만 이행률이 고작 40%으로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9일 광주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상생경영 선언 보다는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 상반기 삼성전자·포스코·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거뒀다"며 "외국기업들도 헤매는데 국내기업들이 선전해 박수받을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실적 잔치가 대기업에 그쳐 안타깝다"면서 "중소기업 권리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권리찾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하는 것으로 납품단가의 현실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도 적당한 이익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리고,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쏟아지는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며 "1~2년 지켜본 뒤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신안 땅값 두달 연속 전국 최고 상승

광양 0.16%·여수 0.15% 올라 … 전국은 보합세

신안과 광양, 여수지역의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의 땅값 상승에 힘입어 전남은 0.08% 올랐고, 광주도 0.02% 상승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땅값이 일제히 떨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내리 올랐던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0%'를 기록했다.

19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신안군은 6월보다 0.25% 올라 두달 연속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안지역은 지난해 5월 0.009%로 상승 반전한 이후 땅값 오름세가 15개월째 지속됐다. 신안의 땅값 상승은 압해 연륙교 건설로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2조56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 중인 신안조선타운의 개발 효과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은 0.16%, 여수는 0.15% 올라 상승률 전국 3위, 5위를 각각 기록했다. 광양지역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주변 개발 기대 심리가 작용했고, 여수는 여수엑스포 개발 사업에 따른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상승률 상위 5걸에 전남 지역이 3곳이나 랭크되면서 전남 전체 땅값을 끌어올렸다.

전남은 7월 땅값 변동률이 0.08%로 지난 2009년 5월 이후 15개월째 상승했다. 광주도 0.02% 올라 지난 2009년 6월 이후 1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토지거래량도 늘어났다. 광주는 지난달 4654필지에 137만㎡가 거래돼 전달(3770필지, 72만㎡)보다 거래면적이 두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430필지, 131만㎡)보다 필지수는 27.6% 줄었지만, 면적은 4.8% 늘었다. 전남은 1만3396필지에 2240㎡로 전달(1만2251필지, 2226만㎡)과 전년도(1만1500필지, 2237㎡)보다 소폭 늘었다.

전국 평균 땅값은 전달 가격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간 내리 올랐던 전국 땅값이 '0%'를 기록하며, 멈췄다. 서울이 6월 0.03%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0.07%로 하락폭을 키웠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내리는 등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땅값 하락은 몇 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집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하반기 中企채용 소폭 증가할 듯

올 하반기의 중소기업 채용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중소기업 9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는 업체가 78.4%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조사 결과(77.4%)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채용 계획을 확정한 713개 업체의 올 하반기 채용 예상 인원은 기업당 평균 11.9명으로 작년 하반기(9.9명)에 비해 2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 · 중공업 17.2명, 식음료 16.3명, 전기 · 전자 및 정보통신 12.9명, 유통 · 무역 12.6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3조대 공동주택용지 LH 일괄 매각 공고

광주·전남 등 25곳

LH는 본사 주관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25개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 77필지, 320만㎡, 3조4000억원 상당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일괄매각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금은 최장 5년 분할 납부 및 무이자 할부 조건이며, 금융기관과 연계해 리턴시 반환금액을 담보로 유동화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 매각대상 용지는 분양아파트 부지로 광주 선운지구 5필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5필지, 첨단1지구 1필지, 여수 죽림지구 1필지다.

25일 LH 토지청약시스템(http : //buy.lh.or.kr)으로 신청받아 26일 추첨한다. 이번에 미분양되면 9월 8일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된다.

문의는 LH 토지판매보상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6/2)으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79.64 (+17.65)
▲ 코스닥지수	480.77 (+2.44)
▼ 금리 (국고채 3년)	3.68% (-0.02)
▼ 원·달러 환율	1,172.70원 (-1.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